

**Written by Do Hyun Kim**

---

# *The 5%*

**VOCABULARY**

**High F - Mid F - Low F**

**Part1**

**New Media Learning**

---

샘플 자료는 section 내용의 일부만을 제공합니다.  
몇몇 기능은 샘플에선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PDF 버전>

경우 동영상은 보기 위해선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며,  
유튜브에서 접속해서 보게 됩니다.

### <iBook버전>

iPad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모든 애플 기기에서 사용 가능.  
노트필기, 자동 단어장 생성, 필기 내용 추출 등의 특수 기  
능 모두 지원하며, 인터넷 연결 없이 동영상 시청이 가능

# Chapter 1



안녕하세요. "NYU 유학생"으로 활동했던 김도현입니다. 우선 이렇게 저의 세 번째 책을 통해 많은 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죠. 직업은 "뉴미디어 학습 디자이너"입니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학습을 최적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직접 디자인한 뉴미디어 학습 방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뿐 아니라 대치동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며 현장 강의를 통해 초/중/고 학생에게 뉴미디어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학 가기 전엔 컴퓨터와 반도체 공학을 전공해서 엔지니어로 미국 회사에서 3년 정도 일했는데요. 2012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맨해튼으로 떠났습니다.

New York University에서 영어교육 +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연구했죠. 뉴욕에서 3+1년간의 학문적 배움, 그리고 미국 스타트업에서 일한 사회경험을 영어공부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영어를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 학습 최적화가 최종 미션입니다.

---

“난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단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을 뿐이다.”  
- 무라카미 하루키

---

이 책은 “모두”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제 2 외국어 습득 이론과 뉴미디어 학습 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란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비디오 게임 같은 새로운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합니다. 뉴미디어 학습을 통해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어가 가진 고유의 감정을, 맛을, 소리와 표정을 함께 “입체적으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New York University에서 4년간의 연구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저만의 방식으로 녹여내 만든 새로운 “류”의 학습 방식입니다. 이 책은 중급자, 그리고 멀티미디어 정보에 민감한 비주얼 러너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 Special thanks to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안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참아준 부모님에게,

그리고 이 책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베타테스터로서 오류, 오역,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어주신 독자분에게: 정수용, 최봉림, Dayeong Lee, 김선경, TaeWon Bark, 이철준, 이은정, Jihye Baek, 정애린, 최미도, 윤장근, 송현희, 이욱

감사합니다.

세 번째 책을  
시작하며



---

책 제목: “The 5%”

목적: 원서를 즐겁게 읽도록 만드는 43개의 단어를  
입체적으로 입력하기 위한 책

---

“원서를 읽고 싶다.”

영어를 잘하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대부분 아마존 베스트셀러 같은 책을 영어 원문으로 한번 읽어 보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원어민처럼 말하고 싶다는 것도 일반적이지만 요즘에는 이보다 원서를 해석 없이 읽거나, 영화를 자막 없이 보는 것에 대한 갈망이 정말 높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아마존 베스트셀러 같은 원서를 읽고 싶으면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영어를 배우고 사용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활동을 영어를 배우는 동안 평생 단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언젠간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토익이나 토플 시험만 보면서 언젠간 영어를 잘하게 되어 원서도 해석 없이 읽고, 영화도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거라 착각하죠. 그러나 영어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건 영어를 잘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다는 건 이제 진짜 영어를 배울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즉, 진짜 영어를 배우기 위한 시작점에 도달한 겁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면 이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출발점에 서있는 겁니다. 그 전에 연습을 통해 완주할 체력도 기르고 운동복도 사고한 것이죠. 이것이 영어 시험의 의미고 역할입니다.

---

영어 시험을 디자인한 사람도 외국인이 진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영어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험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배움의 목적과 이를 위한 학습 과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읽고, 유튜브 강의를 보고, 자막 없이 영화를 보거나, 페이스북에서 영어로 소통을 하고 싶다면, 비슷한 환경과 자료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영어 시험 점수를 아무리 높게 받아도 이것을 하는 힘들 겁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 자신도 같은 문제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토익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원서를 마음껏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있어 보이는 원서 책을 사서 일러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책은 전혀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한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것이라 착각하고 토플 시험을 준비했죠. 토플시험 점수가 유학 전에 100점을 넘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즐거운 마음에 원서를 다시 펴서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서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

부끄럽게도 유학 전까지 단 한 권의 원서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학 중에는 1년에 약 50권, 많이 읽는 시기에는 80권 정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유학을 간 이유 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주제의 자료나 책을 찾아보게 되었죠. 큰 틀에서 말하면, 흥미로워하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주제에 대한 독서를 그때 처음 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주제를 학교에서도 배우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모든 것의 중심이 그 내용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저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분조차 제가 어떤 주제를 좋아하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준비된 책을 읽고, 쓰라고 했죠. 즉,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원서를 본 거죠. 이건 독서가 아닙니다.

저는 유학 가서 처음으로 시험 점수가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으로 책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진짜 책을 읽고 싶고 그 주제가 좋아서 읽으니 한글처럼 스토리가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생각은 많아지는데 해석은 사라지는 거죠.

---

“Speed is irrelevant,  
if you are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 마하트마 간디

---

여러분도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읽고 싶다면, 공부라는 생각은 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 읽어야 합니다. 멋있어 보이는, 소위 있어 보이는 주제가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것은 만화책이 될 수도 있고 디즈니 명작이 될 수도 있으며, 요리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어 시험에는 전혀 안 나오는 주제일지 모르는 책이죠.

정말 순수하게 영어 수준 때문에 읽히지 않는, 즐거움을 방해하는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만 학습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대부분 원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원인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준으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움을 진행할 겁니다.

1. 본인이 관심도 없는 주제의 책을 보는 경우
2. 핵심 단어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경우
3. 뜻은 아는데 글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단어의 조각으로 들어오는 경우

우선 첫 번째 이유, 본인이 관심도 없는 주제의 책을 보는 경우는 배경지식의 문제입니다. 이는 영어랑 상관없이 그냥 모르는 겁니다. 한글로도 모르는 내용을 영어로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는 흔히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

예를 들어, 제가 여자 화장품에 대해 영어로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를 떠나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자 정보를 연결하거나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고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죠.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영어를 떠나 자신이 순수하게 좋아하는 주제나 분야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원서 읽기의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문제는 핵심 단어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책은 페이스북, 아마존 베스트셀러,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카데믹 단어를 집중적으로 소개할 겁니다. 이 책은 우리가 원서를 읽을 때 글의 흐름이 끊기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뜻은 아는데 단어가 조각조각 나있어 전체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실 해석을 못해서가 아니라, 재미가 없는 거죠. 이는 단어 뜻은 아는데 문장이 스토리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단어가 가진 고유 색상, 소리, 표정 등을 입체적으로 입력하여 해결할 수 있죠.

각 단어나 문장이 주는 언어적 + 비언어적인 의미를 연결하고 이 책이 소개하는 방식과 같이 주제와 관련된 주변 정보를 채우는 활동을 포함하는 겁니다. 입체적인 입력을 통해 영어가 전하는 내용과 감정이 충분히 담겨 들어오면 해석이 아니라 스토리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를 통해 재미라는 강력한 장치가 ‘영어 공부’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빠지도록 도와줄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 자신의 어휘 수준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히 어휘력을 먼저 확인하기 바랍니다.

<https://brunch.co.kr/@dohyunkim/32>

[김도현 뉴미디어 영어 서재](#)

### 영어, 리딩만으로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영어 어휘력 향상을 위한 독서방법을 디자인하다 by NYU 유학생 | 영어 학습 디자인 #독서 by NYU 유학생 이번 글은 어휘력 향상을 위한 리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 찾도록 도와드리기..

공유 1,265 · 댓글 21 · May 29, 2016





---

이 책은 사전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단어를 담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언뜻 마케팅에 도움이 될진 몰라도 어휘 책으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 책은 최소한의 단어만 포함시켰습니다. 오직 43개의 단어만을 소개할 겁니다. 어휘 책을 만들면서 단 43개의 단어만 담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10개의 단어라도 깊이 있게 배우고 그 배움이 쌓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원서를 즐겁게 읽기 위해 필요한 어휘력은 6천 ~ 1만 단어 수준입니다. 그러나 성인 학습자를 기준으로 실제로 원서를 읽지 못하게 가로막는 단어의 수는 그중에 약 '5%'인, 약 500개 단어입니다.

1만 단어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겨우 300 ~ 500개의 단어 때문에 원서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어를 마주치는 비율 때문이죠.

책 한 페이지에 나오는 단어는 약 300~400개 정도입니다. 만약, 어휘력이 2000 ~ 3000단어 수준이라면, 책 한권을 읽는 동안 모르는 단어가 약 8000개 나온다는 뜻입니다. 모든 문장에서 반드시 1개 이상 모르는 단어와 마주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문장마다 모르는 단어가 반드시 1개 이상 나온다면, 여러분은 그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

특히, 빈도수(frequency)가 높은 단어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같은 단어를 약 10번 정도 계속 마주치게 됩니다. 만약, 모르는 단어가 대부분 높은 빈도수에 속하는 단어의 경우 여러분은 그 책을 읽을 수 없죠.

그러나, 어휘력이 5000 단어 수준만 되어도, 책 한 권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는 약 2천 개 정도로 줄어듭니다. 즉, 모르는 단어가 두 문장에 하나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변경되죠. 특히, 높은 빈도수의 단어를 모두 커버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책을 읽는 것이 가능합니다(Paul Nation 논문 참고).

물론 9000 단어 수준으로 다양한 단어를 입체적으로 입력한다면, 책을 더 즐겁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시험 점수가 아니라 더 재밌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 영어는 더이상 공부가 아니라 놀이처럼 느껴지게 되죠.

이번 책에서는 핵심이 되는 단어 5%에서도 최종적으로 선별된 단 43개의 단어만 배우는 겁니다. 이를 입체적으로 습득하며, 어휘를 익히고 배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

‘The 5%’에 담긴 단어의 선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서를 읽기 위해 필요한 필수 단어는 제2 외국어 어휘 전문가인 Paul Nation의 이론을 통해 선정된 단어 그룹을 이용했습니다.
2. 최초 선정된 약 600개의 단어를 확인하여 한국 성인이 외래어처럼 사용하는 단어는 제외했습니다.
3. 약 300개의 단어가 남겨졌고 해당 단어는 실제 영화 대본 유튜브 연설, 아마존 베스트셀러 책의 본문을 모두 확인해 정말 사용되는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4. 이 과정을 겪고 남은 단어는 약 200개, 여기에 단어의 빈도수를 확인하여 high-mid-low frequency 세 개의 그룹을 만들고 이중 가장 높은 빈도수의 high frequency 그룹에 43개 단어를 이책에서 소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참고로 ‘go, goes, went’ 또는 ‘accurate, accurately, acute’같은 단어는 같은 그룹으로 3개가 아니라 1개 단어로 카운트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드는 사람은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사람이다.”

- 세스 고든,  
12권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 Chapter 2

---

‘The 5%’ 에서 선정된 43개 단어

[Section 1]

1. approach
2. assessment
3. consistent
4. context
5. derive
6. establish
7. estimate
8. indicate
9. interpretation
10. involve
11. procedure
12. required
13. significant

[Section 2]

14. achieve
15. administration
16. appropriate
17. aspect
18. conduct
19. consequence
20. credit
21. obtain
22. perceive
23. restricted
24. seek
25. transfer

[Section 3]

26. alternative
27. compensation
28. components
29. considerable
30. constant
31. coordination
32. criteria
33. deduction
34. dominant
35. ensure
36. imply
37. instance
38. justification
39. proportion
40. scheme
41. sequence
42. sufficient
43. validity

## <추천 학습 방법>

1. 이 책은 잡지나 소설책을 읽듯이 보세요. 즉, 영어 공부(active learning)가 아니라 영어놀이를(inactive learning) 하듯이 보길 추천 합니다.
2. 제공하는 단어는 영-영 설명으로 먼저 뜻을 유추하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한글 뜻과 설명으로 퀴즈를 풀 듯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3. 각 단어가 가진 색상, 맛, 소리, 표정에 집중하세요. 즉, 다양한 context와 비언어적인 정보를 연결해 주세요.
4. 1~3번을 과정을 원하는 만큼 여러 번 진행하셔도 됩니다. 책에 나오는 단어들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기억에 남는 것만 가지고 가세요. 본인에게 중요한 단어라면 반드시 다음에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단지, 상황과 수준이 변할 때 마다 이 책을 다시 보길 추천 합니다.
5. 책이 보기 싫어 지면 언제든지 내려 놓으세요. 보고 싶을 때 그리고 보고 싶은 만큼만 보세요. 이를 통해 영어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고싶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 HIGH-F

Level 1



---

## [Section 1]

1.approach

11.procedure

2.assessment

12.required

3.consistent

13.significant

4.context

5.derive

6.establish

7.estimate

8.indicate

9.interpretation

10.involve

approach

“3 THINGS A MODERN **APPROACH** TO DATA HAS IN COMMON WITH POKÉMON GO”

출처: [www.redbull.com/](http://www.redbull.com/)

Verb:

- to move or become near or nearer to something or someone

Noun:

- any means of access, as a road

---

“3 Things a Modern **Approach** To Data Has in Common With POKÉMON GO.”

“현대적인 데이터 접근방식과 ‘포켓몬 GO’의 공통점 3가지.”

단어를 볼 때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어의 뜻은 눈에 보이고 만지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등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의미와, 시간, 감정, 철학 등과 같이 추상적인 의미 두 가지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기사 제목에서 사용된 ‘approach’는 추상적인 뜻으로 어떤 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약 구체적인 뜻(concrete meaning)으로 사용된다면 ‘approach’는 실제로 존재하여 만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길(예: 활주로)의 의미가 되죠.

- 명사:

1. 접근 방법, 길

-동사:

1.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다, 접근하다

[전체 기사 보기 링크](#)

유럽에 난민 문제에 대해 경제적인 이익만 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철학적 접근(**approach**)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기사입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실제 도로가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로 '**approach**'가 사용된 걸 볼 수 있죠.

\*전체 기사를 보고 싶은 분들은 사진 밑에 기사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A philosophical approach to the refugee crisis

We shouldn't wait for philosophy to give us the solution to the crisis, but maybe it can help us propel towards it.

ALJAZEERA.COM

[전체 기사 보기 링크](#)



**Robb Report** ✓

August 16 at 4:03am · 🌐

👍 Like Page

You will not believe which city has the best landing **approach**.



## The World's Top 10 Most Beautiful Airport **Approaches**

The **approach** into these international destinations gives travellers scenic views from their windows...

ROBBREPORT.COM | BY BAILEY S. BARNARD

“The world’s top 10 most beautiful airport **approaches**”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개의 공항 활주로(접근 길)”

\*눈에 보이는 활주로라는 구체적인 의미(concrete meaning)로 사용된 ‘approach’, 셀 수 있으므로 복수 ‘-s’ 도 붙게 됩니다.

[전체 기사 보기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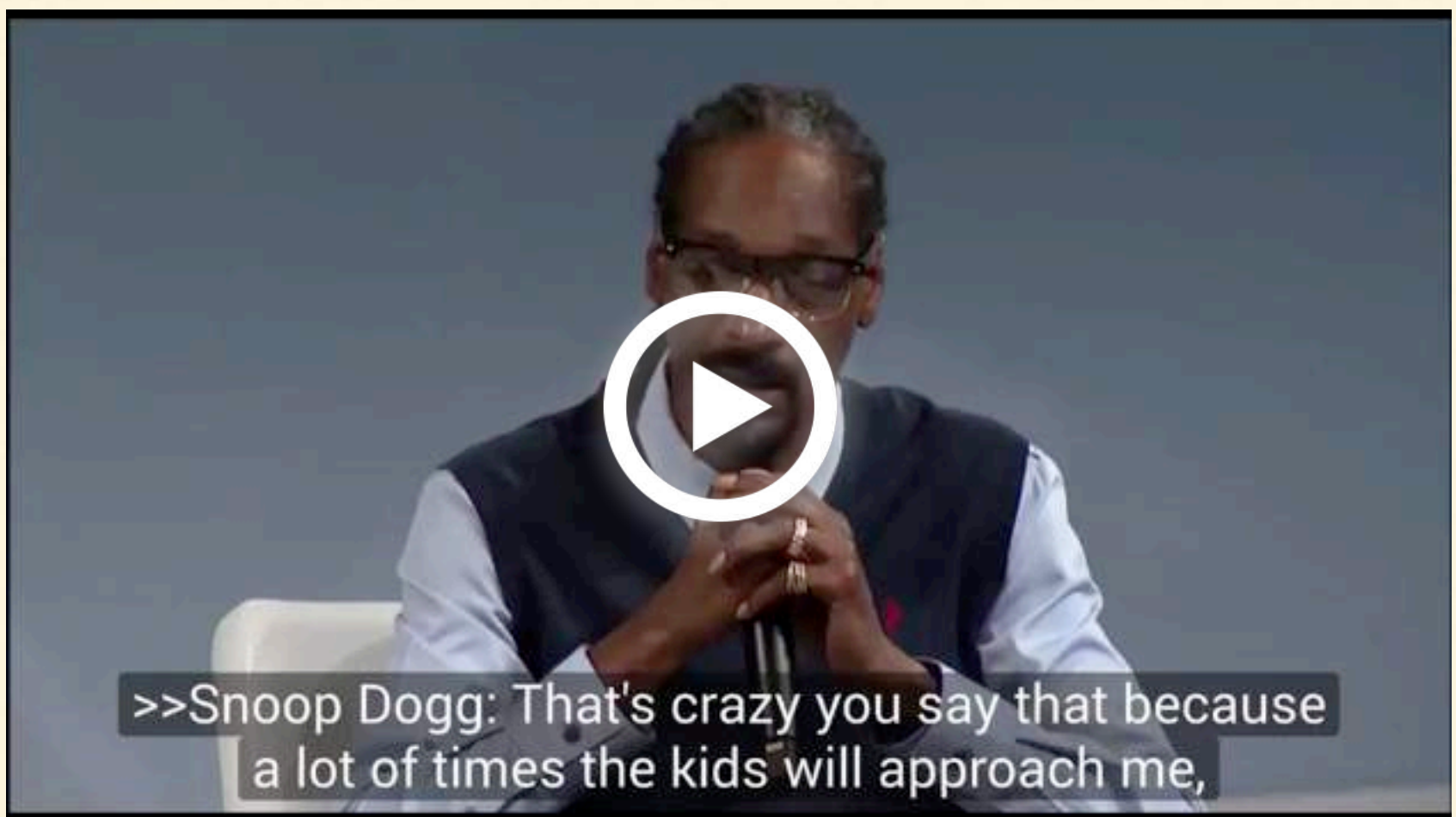
동사/형용사로서 ‘approach’의 사용입니다. 수동태로 사용되어 동사의 동작을 받는 느낌이 첨가되었네요. 그러면 모건 프리먼이 접근한 것이 아니고 접근당한 것이 되는데요. 그가 계속 누군가에게 **접근/접촉당해왔던(has been approached)** 이유는 ‘Marvel’ 영화에 나와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The image is a screenshot of a Facebook post from the IGN page, dated December 13, 2014. The post text reads: "Morgan Freeman has been approached to be in a Marvel movie: <http://go.ign.com/Z4PVVha>". Below the text is a close-up photograph of Morgan Freeman, looking slightly to the right with a serious expression. The post also features the IGN logo, a verified account checkmark, and a "Like Page" button.

[전체 기사 보기 링크](http://go.ign.com/Z4PVVha)

래퍼 스눕독(Snoop Dogg)의 구글 'Zeitgeist Minds' 강연 영상입니다. 그가 욕설이나 성적인 내용을 가사로 쓰다가 갑자기 긍정적인 얘기를 랩에서 하게 된 이유에 설명하는 데요. 하루는 아이들이 **다가와(approach)** 자신을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보곤 그 이유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스눕독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 후 아이들을 생각해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사로 점점 바뀌었다고 합니다.



출처: *ZeitgeistMinds*

---

“a lot of times the kids will **approach** me, and I'm trying to figure out why do the kids like me. This is before I had a football league, before I became, you know, more positive in what I was doing.

And the kids would always come up and say, "We love you, we love you." I never understood why they loved me until I had to figure out that I'm that kid. I am who that kid is. He is seeing himself in me.”

자주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오는데요(approach)**. 왜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이 일은 제가 축구 리그전 얘기로, 지금처럼 긍정적으로 바뀌기 전이었죠. 아이들은 항상 다가와서는 “우리는 당신을 좋아해요, 사랑해요”라고 하죠. 그 아이들이 제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본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왜 저를 좋아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즉 그 아이들인 거예요. 그(아이)는 제게서(스눅독) 그들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주로 흑인 아이들이 스눅독을 우상처럼 여기고 자신을 따르고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스눅독을 아이들은 자신들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원본 영상 전체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N-zu6EHYA2k>



# assessment

“UN **Assessment**: Global Destruction of Mother Earth on Fast Track”

출처: [commondreams.org](http://commondreams.org)

Noun:

- evaluation
- an assigned value

---

“*UN **Assessment**: Global Destruction of Mother Earth on Fast Track*”

“UN 평가: 지구(*mother earth*)의 전세계적 파괴가 빠르게 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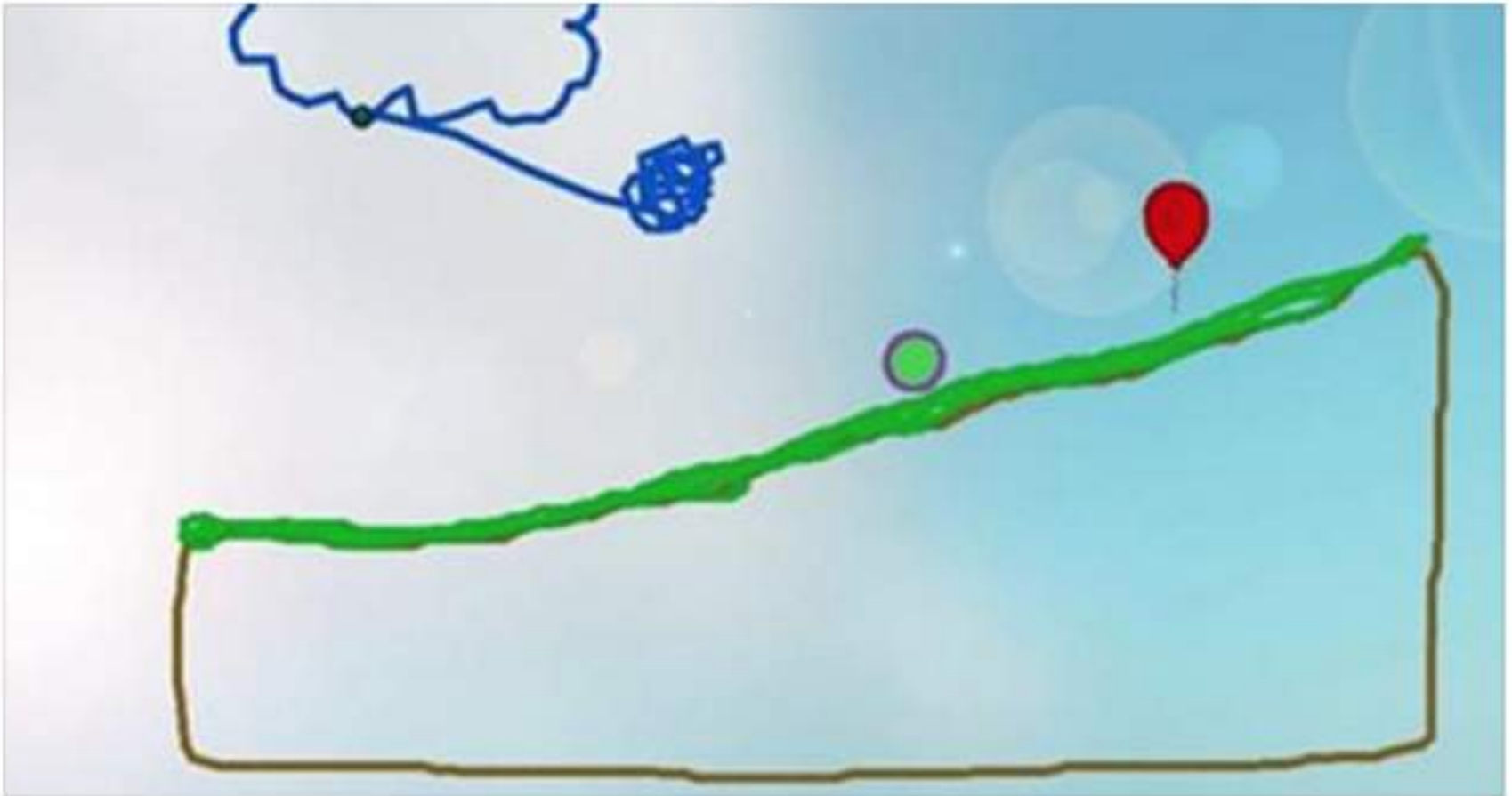
기사 제목에선 **assessment**를 평가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로 사용되는 뜻이죠. 학교에선 Test처럼 시험/확인을 위한 평가의 뜻으로, 비즈니스에선 기업이나 상품 가치의 뜻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명사:

1. 평가
2. 할당된 가치

[전체 기사 보기 링크](#)

학생의 창의력과 지속성이 (시험이 아닌) 게임으로 평가될 수(**be assessed**) 있을까요?



## Can a Child's Creativity and Persistence be Assessed by a Game?

Researchers are looking into how well "stealth assessments" embedded in video games could help measure less tangible qualities like creativity and persistence.

WW2.KQED.ORG

[전체 기사 보기 링크](#)

새로운 교육방식에서 학생들을 점수로 평가하는 grading 방식을 폐지하고 프로젝트/연구 중심의 수업을 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평가는 자신이 스스로 하는, **자가 진단(self-assessment)**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Shifting the conversation from "getting the grade" to actually learning.



## Going Gradeless: Student Self-Assessment in Project-Based Learning

EDUTOPIA.ORG | BY MATT WEYERS

“Going gradeless: student self-assessment in project-based learning”

“성적표없는 세상으로: 학생들 스스로 평가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전체 기사 보기 링크](#)

2012년 켄 로빈슨(sir. Ken Robinson) 경의 Zeitgeist Americas 발표 영상입니다. 미국 교육에 대한 불편함을 말하는데요. 현재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ADHD 판정받고 약물을 복용하게 된 학생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단 결정이 너무 선부르고 주관적인 **평가를(assessment)** 기준으로 내려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출처: *Zeitgeist Americas 2012*

---

Currently, in the United States, almost 10% of 14 to 19-year-olds are on drugs to treat attention deficit disorder, ADHD. The people prescribing them will tell you, in some cases these are genuine instances; in many cases it's based on the quickest and most subjective of **assessments**.

현재 미국에서 14~19세 약 10%의 학생이 ADHD라는 집중력 부족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약물을 복용 중입니다. 이러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몇몇의 경우 진짜 (ADHD 진단을 받아야 하는) 케이스(genuine instances)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판단은 가장 즉각적이고 주관적인 **평가(assessments)**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본 영상 전체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w9-SYa\\_82TI](https://www.youtube.com/watch?v=w9-SYa_82TI)

**consistent**

“How to Set an Intention to Stick to a  
**Consistent** Meditation Practice”

출처: [yogajournal.com/](http://yogajournal.com/)

Adjective:

- always acting or behaving in the same way

---

“How to Set an Intention to Stick to a **Consistent** Meditation Practice.”

“**꾸준히/지속적인** 명상 수행을 위해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가.”

‘Consistent’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곳은 운동 관련 기사를 볼 때입니다. 야구선수가 **지속적인(consistent)** 연습을 통해 최고의 실력을 갖게 되면 인터뷰나 기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죠. 보통 천재성, ‘talent’라는 단어에 반대하는 의미로서 **꾸준히(consistent)** 노력 하는 것의 중요성과 강력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죠.

형용사:


## 1. 지속적인

[전체 기사 보기 링크](#)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운동에서 선수의 **일관성/**


**꾸준함(consistency)**으로 인해 최고의 선수로 선정된 Howie Kendrick에 대한 기사를 보시죠. 그가 **꾸준함의(consistency)** 좋은 예라고 하네요.



**Dodgers Nation** ✓  
10 hrs · ✱

Like Page

Howie Kendrick has helped lead this team to first place of the National League West thanks to his consistent bat. Our Nate Edelman breaks it down!



**Howie Kendrick: The Model for Consistency | Dodgers Nation**

Whenever I sit down and watch the Dodgers play, I constantly think of the status of players and their future with the team. Like this: Corey Seager... amazing, not...

DODGERSNATION.COM

[전체 기사 보기 링크](#)

일관성이 중요한 또 다른 분야가 바로 정치 분야죠. 정치인이 오랜 기간 자신의 신념과 정책을 **일관성 있게(consistent)** 하느냐는 중요하죠. 힐러리 클린턴이 총기 규제에 대한 법(주로 헌법)을 2차 수정에서도 계속 그대로 **유지할(consistent)**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시죠.



## Clinton Vows Gun Control Will Be Consistent With Second Amendment: "That Has Never Been in Doubt"

AMES, Iowa — Hillary Clinton on Saturday promised voters that "common-sense" restrictions on gun purchases won't violate anyone's Constitutional rights. "The..."

THEBLAZE.COM

[전체 기사 보기 링크](#)



**Jay Cutler** ✓

August 2 at 1:26am · 🌐

👍 Like Page



Your body is art. Train hard, eat healthy and stay consistent. #LGND  
#ConsistencyIsKey



Bill Gates와 그의 아내 Melinda Gates가 Stanford 대학교 졸업 축사를 하는 영상입니다. 둘은 최근 자선활동, 특히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죠. 연설에선 아프리카의 참혹한 실상을 묘사하며, 전기도 **지속적으로(consistent)** 공급이 안 되며, 기본적인 생필품이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출처: *Stanford*

---

“Most people didn't wear shoes. They walked barefoot along the streets, except there were no streets, just ruts in the mud. The community center had no **consistent** source of power. So they rigged up an extension cord that ran 200 feet from the center to the diesel generator outside.”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그들은 맨발로 길을 따라 걷죠, 길이(street)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면요. 즉, (길이 아니라) 진흙 (바퀴 자국으로 파인) 고랑이죠. 커뮤니티 센터(일종의 주민센터)에는 **지속적(consistent)인/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로/급한대로 연장 코드를 연결해서 센터로부터 200피트 정도 떨어진 밖에 디젤 발전기를 설치하죠.

\*\*원본 영상 전체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wug9n5Atk8c>



# estimate

“The Easy Way to **Estimate** the Calories in Beer”

출처:<http://lifehacker.com>

## Verb:

- to give or form a general idea about the value, size, or cost of something

## Noun:

- an approximate judgment or calculation, as of the value, amount, time, size, or weight of something

---

“The Easy Way to **Estimate** the Calories in Beer”

“맥주 칼로리를 (추정)계산/평가 하는 쉬운 방법”

‘Estimate’가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 “~을 미리 계산해 보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주로 예측, 추측한 계산이라 정확도는 좀 낮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명사인 경우, “예상 견적(서)/평가”의 뜻을 전달하죠.

- 동사:

1. ~를 미리 계산/평가해 보다

- 명사:

1. 평가, 견적(서)

[전체 기사 보기 링크](#)

---

잠깐, 맥주와 같은 술 관련 얘기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영어를 교과서로만 하기 때문이죠. 사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남자끼리 하는 얘기의 대부분은 술과 관련된 겁니다. 맥주는 뭐가 있고 한국에는 어떤 술이 있느냐 묻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을 영어로 접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영어가 아니라 얘깃거리가 없어서 영어를 못 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지적하는 문제죠. 영어 스킬이 아니라 그 영어라는 스킬, 그릇에 담을 콘텐츠가 없어서 영어로 말도 못 하고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역시 스토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 다행히 가수 싸이 덕분에 소주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친구들도 같이 먹어보자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즐겁게 대화가 가능했죠. 관심사를 찾아 즐겁게 읽고 보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영어 공부입니다.



---

앞서 보신 맥주 관련 기사의 본문 내용을 조금 더 볼 겁니다. 빈 영어 그릇에 맛있는 콘텐츠를 좀 채워 넣고 가시죠.

“All beers are not created equal calorically. Beers range from well under 100 calories per 12-ounce serving, for light beers, to 500-plus-calorie bombs for something like Dogfish Head’s highly regarded 120 Minute IPA.”

“모든 맥주가 같은 칼로리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라이트 맥주처럼, 12온스에 약 100칼로리 이하인 것부터, Dogfish Head의 ‘120-Minute IPA’는 500칼로리 이상 되는 칼로리 폭탄 같은 맥주까지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놀랐던 건, 맥주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과 심지어 물보다 싸다는 거였죠. 그래서 참 많이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앞서 기사에서 보신 칼로리 폭탄, Dogfish Head의 '120 Minute IPA' 맥주 정보입니다. 남자들은 맥주, 위스키 같은 술 얘기로 미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음식 관련 주제는 정치, 종교, 교육보다 항상 안전한 주제니 참고하세요.

## 120 Minute IPA | Dogfish Head Craft Brewery

Log in or Sign up to start rating.

### BEER INFO

**Brewed by:**  
Dogfish Head Craft Brewery  
Delaware, United States | [website](#)

**Style:** American Double / Imperial IPA

**Alcohol by volume (ABV):** 18.00%

**Availability:** Rotating

### Notes / Commercial Description:

Too extreme to be called beer? 120 Minute IPA is brewed to a colossal 45-degree plato, boiled for a full two hours while being continuously hopped with high-alpha American hops, then dry-hopped daily in the fermenter for a month and aged for another month on whole-leaf hops!

120 IBU  
ABV varies from 15-20%.



출처: [www.beeradvocate.com/beer/profile/64/9086](http://www.beeradvocate.com/beer/profile/64/9086)



The New York Times

July 1 · 🌐

Like Page

A new estimate suggests there are many more transgender adults in the U.S. than previously believed.



## Estimate of U.S. Transgender Population Doubles to 1.4 Million Adults

The new figure is likely to raise questions about the sufficiency of services to support a population that may be larger than many assumed.

NYTIMES.COM | BY JAN HOFFMAN

“**Estimate** of U.S. transgender population doubles to 1.4 million adults”

“미국에 성전환자 추정 인구는 약 140만 명으로 두배가 된다.”

[전체 기사 보기 링크](#)

한 때는 실리콘 벨리에서 여성 Steve Jobs로 불리던 테라노스(Theranos)의 설립자 엘리자베스 홈스(Elizabeth Holmes)에 대한 기사입니다. 피 한 방울로 간편하게 의료 진단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던 회사인 테라노스의 기술력이 과장된 것으로 판명 나자 그녀의 주식 가치 평가(estimate)가 4.5 billion(약 5조 원)에서 0원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Forbes just cut its estimate of Theranos CEO Elizabeth Holmes's net worth from \$4.5 billion to zero

The company's value has been slashed.

THEATLN.TC | BY OLIVER STALEY

[전체 기사 보기 링크](#)

‘Estimate’는 동사와 명사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위치, 문맥(context)를 통해 그 뜻을 확인해야 하죠. 기사에선 명령문 형태의 동사로 “평가를 하다”가 아니라 “~를 해봐라”라는 킴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Estimate Your Retirement Needs Based On Your Spending, Not Your Income.”**

**“당신의 은퇴 후 필요 자금을 수입이 아니라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라.”**

[전체 기사 보기 링크](#)

‘Pebble’이라는 초기 스마트 워치를 만드는 회사를 설립한 Eric Migicovsky의 강연입니다. 주제는 ‘How to Start a Startup’으로 회사 초기단계에 같이 일했던 직원의 약 50~60퍼센트 정도는 자신 또는 직원들의 친구를 데려온 것으로 **추정한다(estimate)**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출처: *uwaterloo*

---

“I don't know the exact numbers but I think a rough **estimate** would be that more than fifty to sixty percent of the people working at Pebble came from some node on the network earlier and got pulled in by their friends.”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계산(estimate)**은 아마도 Pebble에서 일했던 사람의 50~60 퍼센트 이상은 회사 관련자나 그 사람들의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원본 영상 전체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jpkgmdUc77I>

# interpretation

“Woman Performs Incredibly Beautiful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of Adele's 'Hello’”

출처: aol.com

Noun:

- an explanation of the meaning of another's artistic or creative work; an elucidation



---

## “Woman Performs Incredibly Beautiful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of Adele's 'Hello'”

“한 여성이 아델(Adele)의 'Hello'를 수화로 정말 멋지게 해석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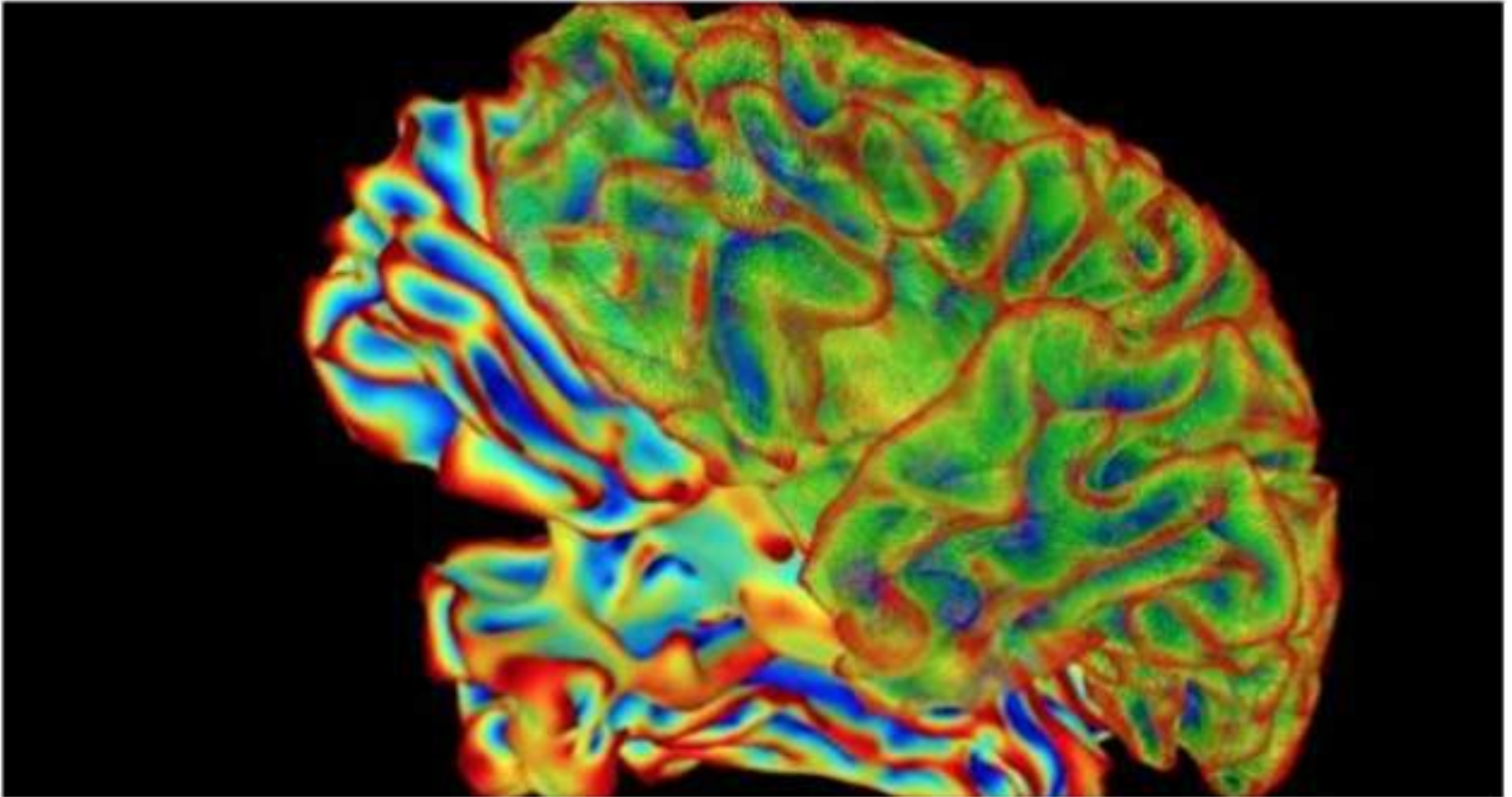
‘Interpretation’는 단순히 단어-단어를 직역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나 문맥(context)을 고려한 의역에 가깝죠. 예를 들어,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를 영어 단순 번역하면 미국인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관계없는 일이 서로 연결되어 오해를 산다는 의미”라고 문맥을 통한 해석을 하는 거죠. 사전적 의미보다는 본래의 의미를 각 언어에 맞게 전달하는 겁니다.

- 명사:

1. 해석, 통역, 해명
2. (예술작품)해석, 연출

[전체 기사 보기 링크](#)

USC 대학 연구소에서 뇌 이미지 해석(interpretation)을 간단하게 해줄 기술/도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USC researchers develop tools to simplify the interpretation of brain images

BrainSuite opens the door for sophisticated large-scale studies.

NEWS.USC.EDU

[전체 기사 보기 링크](#)

Ryan Benjamin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Thunder-Cats라는 캐릭터를 표현한/해석한(interpretation) 색상이 어떤지 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Great color and character composition from Ryan Benjamin. What do you think of this ThunderCats interpretation?  
#ThunderCats #Art #FanArt



이번에는 앞서 보신 수화 통역자, Molly가 실제 노래를 수화로 해석하는 모습을 담은 뉴스를 볼 건데요. 정말 수화로 해당 곡의 느낌까지 잘 표현하고 해석(**interpretation**)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뉴스 리포터가, “American sign language interpreter,” 그리고 “live interpret,”라고 말하는 부분이 들리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insideedition.com*

전체 영상:

영상 후반 부는 수화만 보여주고 음악은 나오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pqdgFM8zSU>

**significant**

*“Volkswagen will face federal criminal charges in the US for its diesel emissions scandal, possibly resulting in **significant** financial penalties”*

출처:theverge.com

Adjective:

- very important
- large enough to be noticed or have an effect

---

“Volkswagen will face federal criminal charges in the US for its diesel emissions scandal, possibly resulting in "**significant** financial penalties"

“Volkswagen이 디젤 가스 배출 문제로 미국 연방법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significant)** 금전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Significant’는 “중요한/상당한”이라는 뜻으로 회화 같은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아카데믹한 문서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보게 됩니다. 비슷한 뜻인 important는 일반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의미라서 격식을 차린 자리나 캐주얼한 자리나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의 특성상 임팩트가 약하죠. “significant”는 “어떤 영향이 눈에 띄 정도인 양인, 의미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의 느낌이 있으며 important보다 임팩트를 더 줄 수 있습니다.

- 형용사:

1. (의미있게) 중요한, 엄청난

[전체 기사 보기 링크](#)

아래 통계 자료를 보면, 'significant'라는 단어는 거의 academic 분야에서만 사용되고, 'important'의 경우 academic 분야 뿐 아니라, 잡지, 신문, 그리고 spoken language에서도 자주 사용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FREQ: 빈도수

PER MIL: 100만개 당 사용되는 횟수

BBC News 기사를 보면, 브라질 Rio 올림픽에서 미국 수영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중요한(**significant**)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백인이 주를 이루는 수영 종목에서 변화를 가져왔지만, 흑인 수영 선수라는 부분 때문에 조명을 받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두 미국인으로서 봐야 한다는 거겠죠.



**BBC News** ✓  
August 12 at 9:37pm · 🌐

Like Page

She doesn't want to be known as "Simone, the black swimmer".



Why Simone Manuel's Olympic gold is so **significant**

BBC.CO.UK

[전체 기사 보기 링크](#)



Netflix CEO, Reed Hastings의 Stanford 강연으로 넷플릭스는 사장이 아니라 프로젝트 담당자가 **중요한(significant)**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한다는데요. 정작 CEO 자신은 의사 결정에 가능한 최소한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I, I take pride in making as few decisions as possible as opposed to as many as possible. And so when something **significant** changes in the content or the House of Cards purchase, you know, Ted explained it. It was a huge purchase at that time. I said, are you really sure it's a great bet? Yes. Let's do it.”

저는 (CEO로서) 가능한 많은 결정으로 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능한 적은 결정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의 **엄청난 (significant)** 변화, ‘하우스 오브 카드’ 구매 같은 부분에서도 Ted가 설명했듯이, 그것은 큰 구매건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이거 훌륭한 거래인가, 확실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고.”라고 말했죠.

\*\*원본 영상 전체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zCO0INfs4oM>

---

샘플 자료는 section 내용의 일부만을 제공합니다.  
몇몇 기능은 샘플에선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PDF 버전>

경우 동영상은 보기 위해선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며,  
유튜브에서 접속해서 보게 됩니다.

### <iBook버전>

iPad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모든 애플 기기에서 사용 가능.  
노트필기, 자동 단어장 생성, 필기 내용 추출 등의 특수 기  
능 모두 지원하며, 인터넷 연결 없이 동영상 시청이 가능

# Chapter 3

---

앞으로 소개할 아마존 베스트 셀러들은 우리가 결국 보고자 하는 수준의 책 일 겁니다. 한국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해외에선 영향력 있는 책은 포함시켰습니다. 소개되는 모든 책은 제가 직접 다 읽어 봤으며,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텍스트 정보만 제공하는 책을 먼저 보는 것이 힘들다면 저자의 이름이나 책 제목과 같은 키워드를 유튜브 등에서 검색하세요. 관련 강의나 요약 영상을 먼저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책으로 돌아와 해당 내용을 읽는 것은 비주얼 러너에게 매우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간단한 구글링을 통한 리서치를 하면 더 깊이 있고 즐거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겁니다. 구글링을 통한 학습 방법은 저의 첫 번째 책을 통해 자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에버노트를 통한 비디오 노트 작성법은 저의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노트 작성 법:

<https://brunch.co.kr/@dohyunkim/113>

영작 연습을 위한 에버노트 사용 법:

<https://brunch.co.kr/@dohyunkim/26>

첫 번째 책 구매 사이트:

<https://nyu.selz.com/>

## <추천 학습 방법>

1. Chapter 2에서 배운 표현들로 인해 영어를 단순히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글만 있는 문서를 읽을 때도 앞서 봤던 단어를 마주치면 단어 뜻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정보도 떠올라야 하죠.
2. 각 지문에 나온 단어의 뜻이나 느낌을 모르는 경우는 해당 단어에 대한 느낌과 감정 등을 chapter 2로 돌아가 다시 확인하세요.
3. 소개되는 모든 책에 대한 난이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의 책을 먼저 선택하여 즐거움을 동반한 리딩을 진행하세요. 지문을 순서대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관심이 가는 책부터 먼저 보세요.

\*참고: Chapter 3은 Level 1과 Level 2로 구성되어있으며, Level 2에서 다루는 책의 수준이 Level 1 보다 더 높습니다. 책의 난이도는 ATOS라는 공식 책 난이도 측정 도구를 사용한 정보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글의 길이, 단어 수준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한국인을 위해 초급/중급/고급자로 재 정의한 난이도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에서 부턴 독자분의 의견을 반영해 모든 지문에 대한 한글 해석을 제공합니다. 단지, 한글 해석은 참고용으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초급자의 경우 한글 해석을 먼저 보세요.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시면 “이를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까?”라는 호기심을 갖고 해당 지문을 읽는 방식을 사용하세요.

# APPLICATION

## Level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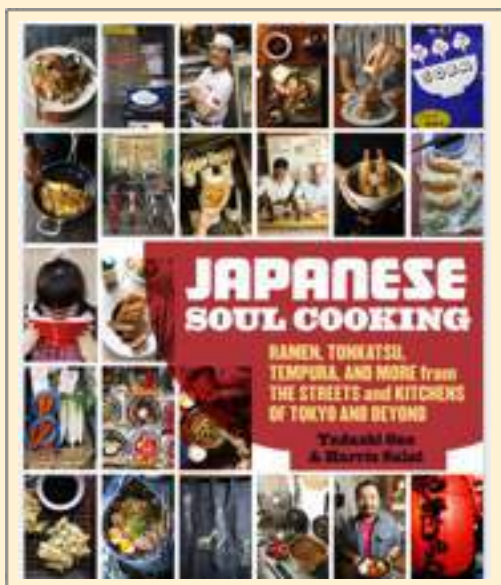
‘Japanese Soul Cooking’이라는 일식 요리책입니다. 제가 실제로 학원에서 요리사가 되고 싶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는 요리책 중 하나입니다. 각종 덮밥류에 대한 요리방법과 맛을 높이는 간단한 비법 등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일본식 만두인 교자(gyoza)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approach**’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 겁니다.



Excerpt From: Tadashi Ono. “Japanese Soul Cooking.”

“And besides the frying-and-steaming **ap-proach**, you can poach gyoza in soup, steam them, or deep-fry them. You can also make these phenomenal dumplings with different ingredients, like chicken, shrimp, veggies, or even duck. And instead of the classic three-ingredient sauce, you can dip gyoza into oyster sauce or an amazing miso sauce.”

Excerpt From: Tadashi Ono. “Japanese Soul Cooking.” iBooks.



출처: [Amazon.com](https://www.amaz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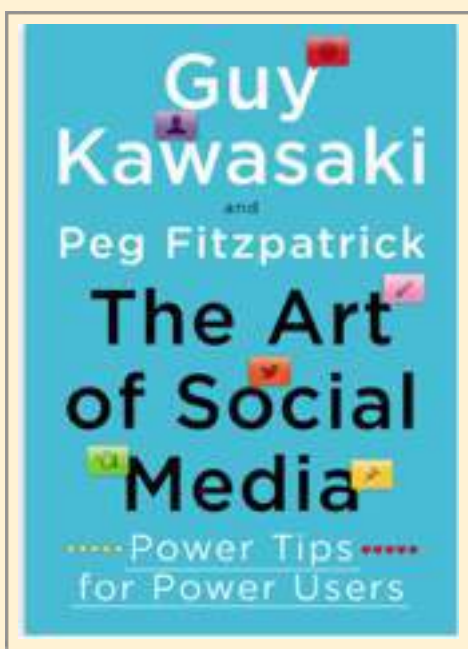
<해설>

“And besides the frying-and-steaming **approach**, you can poach gyoza in soup, steam them, or deep-fry them. You can also make these phenomenal dumplings with different ingredients, like chicken, shrimp, veggies, or even duck. And instead of the classic three-ingredient sauce, you can dip gyoza into oyster sauce or an amazing miso sauce.”

튀겨-찌는 **방식(approach)** 말고도, 당신은 교자를 수프에 넣거나, 찌거나, 완전히 튀길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훌륭한 만두를 다른 재료를 가지고도 만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닭고기, 새우, 야채, 또는 심지어 오리 같은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3가지 재료의 소스 대신, 굴 소스나 끝내주는 된장 소스에 찍어 먹을 수도 있다.

‘Japanese Soul Cooking’의 난이도: 8.2 /12, 초급

이전 챕터에서 잠시 소개했던 인물이죠, Guy Kawasaki의 저서 ‘The Art of Social Media’입니다. 이전에는 애플 제품의 전도사로, 그리고 다음에서 삼성 테블릿, 현재는 ‘Canva’라는 소셜 미디어 이미지 편집 사이트 소개하고 있죠. 지문에선, ‘#’과 ‘@, +’ 같은 기호를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자신의 포스팅을 **확실히(ensure)** 상대가 보게 만들려면 ‘#’이 아니라 ‘@’를 사용해야 한다네요.



출처: *Amazon.com*

“The purpose of a hashtag is to help people share a topic. This is different from a response. For example, when Audi introduces a new car and you want to discuss it with other Audi aficionados, you should use #Audi. When you make a comment about Audi or to Audi and want to **ensure** that Audi sees it, you should use @Audi on Facebook or Twitter and +Audi on Google+”

Excerpt From: Guy Kawasaki. “The Art of Social Media: Power Tips for Power Users.” i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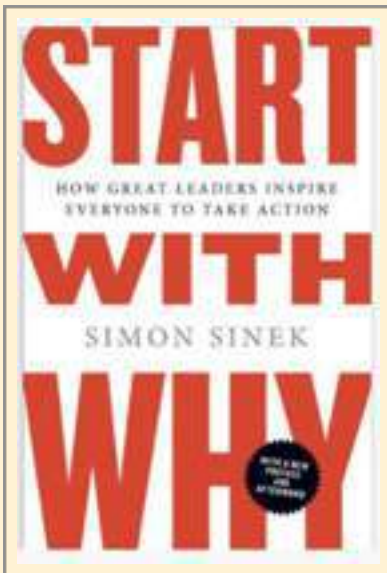
### <해설>

“The purpose of a hashtag is to help people share a topic. This is different from a response. For example, when Audi introduces a new car and you want to discuss it with other Audi aficionados, you should use #Audi. When you make a comment about Audi or to Audi and want to **ensure** that Audi sees it, you should use @Audi on Facebook or Twitter and +Audi on Google+”

해시 태그의 목적은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공유하는 걸 돕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응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Audi’가 새로운 차를 소개하고 당신이 그 차에 대해 다른 Audi 광팬과 토론하길 원할 때, 당신은 ‘#Audi’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Audi’에 대해서 또는 ‘Audi’에게 코멘트를 하려고 할 때 그리고 ‘Audi’가 **확실히(ensure)** 그걸 보길 원할 때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선 ‘@Audi’로, 구글 플러스에선 ‘+Aud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The Art of Social Media’의 난이도: 7.4 /12, 초급

‘Simon Sinek’의 책 ‘Start With Why’입니다. 그의 TEDx 강연은 가장 많은 사람이 본 TED 영상 중 하나죠. 책의 내용은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할지, 무엇이 최고의 방법인지와 같이 ‘what’에 집중하는 반면, 정말 성공한 기업이나 사람은 ‘why’에 집중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애플 성공을 그 이론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부분으로 ‘**consistently**’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Amazon.com*

“Simply copying WHAT Apple does or HOW it does it won’t work. There is something more, something hard to describe and near impossible to copy that gives Apple such a disproportionate level of influence in the market. The example starts to prove that people don’t buy WHAT you do, they buy WHY you do it. It’s worth repeating: people don’t buy WHAT you do, they buy WHY you do it.”

Apple’s ability to design such innovative products so **consistently** and their ability to command such astounding loyalty for their products comes from more than simply WHAT they do. ”

Excerpt From: Simon Sinek. “Start With Why.” iBooks.

## <해설>

“Simply copying WHAT Apple does or HOW it does it won’t work. There is something more, something hard to describe and near impossible to copy that gives Apple such a disproportionate level of influence in the market. The example starts to prove that people don’t buy WHAT you do, they buy WHY you do it. It’s worth repeating: people don’t buy WHAT you do, they buy WHY you do it.”

“Apple’s ability to design such innovative products so **consistently** and their ability to command such astounding loyalty for their products comes from more than simply WHAT they do. ”

단순히 애플이 무엇을 했는지 또는 어떻게 했는지를 카피하는 것만으론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뭔가 그 이상의 말로 설명하긴 힘든, 그런 압도적인 수준의 영향력을 시장에서 발휘하는 것을 카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애플의 예가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만드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일을 “왜” 하는지에 돈을 쓴다는 걸 증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해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에 돈을 쓴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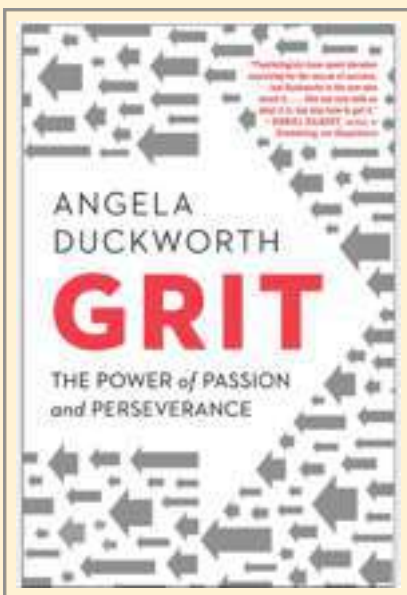
애플의 그런 혁신적인 제품들을 **지속적으로(consistently)**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과 제품에 대해 엄청난 충성심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이 단순히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Start With Why’의 난이도: 8.0 /12, 중급

APPLICATION

Level 2

‘Angela Duckworth’의 책 ‘Grit’입니다. 저자인 안젤라는 가장 인기 있는 TED 강연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책에선 성공의 열쇠로 재능뿐 아니라 그 재능을 실제로 이끌어 내는 노력과, 이를 지속시키는 능력인 ‘grit’을 강조하죠. 지문에선 미국 사관학교 생도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평가(assessment)**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지 확인할 겁니다.



출처: *Amazon.com*

“The admissions process for West Point is at least as rigorous as for the most selective universities. Top scores on the SAT or ACT and outstanding high school grades are a must. But when you apply to Harvard, you don’t need to start your application in the eleventh grade, and you don’t need to secure a nomination from a member of Congress, a senator, or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You don’t, for that matter, have to get superlative marks

in a fitness **assessment** that includes running, push-ups, sit-ups, and pull-ups.

Excerpt From: Angela Duckworth. “Grit.” iBooks.

<해설>

“The admissions process for West Point is at least as rigorous as for the most selective universities. Top scores on the SAT or ACT and outstanding high school grades are a must. But when you apply to Harvard, you don’t need to start your application in the eleventh grade, and you don’t need to secure a nomination from a member of Congress, a senator, or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You don’t, for that matter, have to get superlative marks in a fitness **assessment** that includes running, push-ups, sit-ups, and pull-ups.”

최소한 West Point의 입학 과정은 미국 최고 수준의 대학교만큼이나 혹독합니다. SAT 또는 ACT 점수가 최상위권이면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도 뛰어나야만 하죠. 당신이 하버드를 지원할 때는 11학년에 지원을 시작을 한다거나, 주상원 의원이나 부통령 같은 사람들의 추천서를 꼭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없죠. 당신의 팔 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나, 턱걸이를 포함한 달리기 능력 같은 높은 수준의 체력 **평가/점수(assessment)**를 (다른 학교 입학 시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 다른 학교는 아니지만, West Point의 입학을 위해 고위층 추천서가 필요하고 높은 체력 검증도 한다는 의미

‘Grit’의 난이도: 8.5 /12, 중급



## <정보>

앞서 보신 책 'Grit'의 저자가 진행한 Google 강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해설 강의로도 만들었는데요. 대본도 같이 제공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배워 보시죠.

[김도현 뉴미디어 영어 강의](#)

### 정말 재능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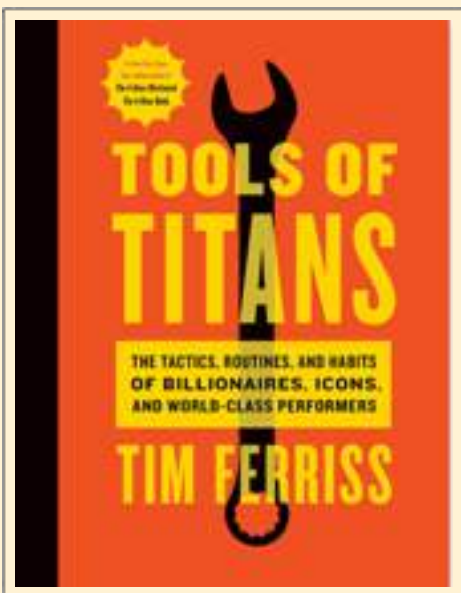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능력 "grit"의 힘 | 김도현 뉴미디어 영어 강의 연재 #12 지난 강의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magazine/nyulecture1> 새로운 학...



링크:

<https://brunch.co.kr/@dohyunkim/125>

팀 페리스(Timothy Ferriss)의 ‘Tools of Titans’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방송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든 건데요. 팀 페리스는 실리콘 벨리에서 유명한 벤처 투자자이며, 사업가 겸, 작가죠. 한 때는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라틴 댄스, 요리, 궁술, 잠수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어디까지 배울 수 있는지 도전하는 ‘Trial by Fire’라는 티브이쇼 진행자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지문에선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1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작가 Seth Godin의 명언을 소개하고 있죠.



출처: Amazon.com

## “TRY SITTING AT A DIFFERENT TABLE

“If you think hard about one’s life, most people spend most of their time on defense, in reactive mode, in playing with the cards they got instead of moving to a different table with different cards. Instead of **seeking** to change other people, they are willing to be changed. Part of the arc of what

I’m trying to teach is: Everyone who can hear this has more power than they think they do. The question is,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power?”

Excerpt From: Timothy Ferriss. “Tools of Titans.” iBooks.

<해설>

“TRY SITTING AT A DIFFERENT TABLE

If you think hard about one’s life, most people spend most of their time on defense, in reactive mode, in playing with the cards they got instead of moving to a different table with different cards. Instead of **seeking** to change other people, they are willing to be changed. Part of the arc of what I’m trying to teach is: Everyone who can hear this has more power than they think they do. The question is,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power?”

테이블을 바꿔 앉아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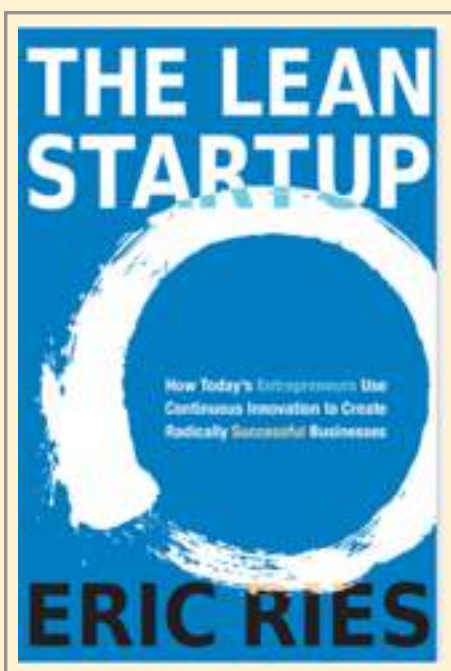
만약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자신을 방어 하는 데 사용하고, 수동적인 모드로, 다른 카드로 다른 테이블로 옮겨서 플레이하는 대신 주어진 카드로만 플레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모색하는(seeking)** 것보다 기꺼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모두는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힘/능력을 가지는데요. 문제는, 그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죠.

팀 페리스의 ‘Trial by Fire’ 트레일러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09\\_YaUw9Rm8](https://www.youtube.com/watch?v=09_YaUw9Rm8)

‘Maangchi's Real Korean Cooking’의 난이도: 8.2 /12, 중급

‘Lean Startup’은 ‘Pivot’이란 단어를 실리콘 밸리에서 크게 유행시켰던 책입니다. “Pivot”은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설정한 회사의 계획이나 전략을 상황에 따라 변경하면서 문제를 돌파하는 접근법이죠. 특히 스타트업 같은 작은 회사의 경우 초기에 세운 하나의 전략으로 무던히 가는 것보단,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죠. 저자는 기존의 성공담을 다루는 많은 책과는 달리 자신이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겪은 실패담을 바탕으로 얘기를 이끌어갑니다.



출처: [Amazon.com](https://www.amazon.com)

“One company I worked with had the misfortune of forecasting significant customer adoption—in the millions—for one of its new products. Powered by a splashy launch, the company successfully executed its plan. Unfortunately, customers did not flock to the product in great numbers. Even worse, the company had invested in massive infrastructure, hiring, and support to handle the influx of customers it expected. When the customers failed to materialize, the company had committed itself so completely that they could not adapt in time. They had “**achieved** failure”—successfully, faithfully, and rigorously executing a plan that turned out to have been utterly flawed.”

Excerpt From: Eric Ries. “The Lean Startup: How Today’s Entrepreneurs Use Continuous Innovation to Create Radically Successful Businesses.” iBooks.

## <해설>

“One company I worked with had the misfortune of forecasting significant customer adoption—in the millions—for one of its new products. Powered by a splashy launch, the company successfully executed its plan. Unfortunately, customers did not flock to the product in great numbers. Even worse, the company had invested in massive infrastructure, hiring, and support to handle the influx of customers it expected. When the customers failed to materialize, the company had committed itself so completely that they could not adapt in time. They had “**achieved** failure”—successfully, faithfully, and rigorously executing a plan that turned out to have been utterly flawed.”

내가 일했던 한 회사는 수백만 명의 고객이 올 거라고 예상하는 엄청난 우를 범했습니다. 이를 대비해 재빠르게 제품을 출시했고, 회사는 성공적으로 계획을 수행했죠. 그러나 불운하게도, 제품을 사용하려는 엄청난 수의 고객들이 오진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회사는 엄청난 금액을 거대한 인프라 구축, 직원 고용, 그리고 예측된 고객들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이미) 해버렸습니다. 실질적인 고객 모집에 실패했을 때, 그 회사는 시기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죠. 그들은 ‘실패를 성취했죠(achieved)’ - 아주 성공적이고, 충실하고, 엄격하게 계획을 실행했던 것이 결국 뼈아픈 잘못이었던 거죠.

‘The Lean Startup’의 난이도: 10.0 /12, 고급

---

샘플 자료는 section 내용의 일부만을 제공합니다.  
몇몇 기능은 샘플에선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PDF 버전>

경우 동영상은 보기 위해선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며,  
유튜브에서 접속해서 보게 됩니다.

### <iBook버전>

iPad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모든 애플 기기에서 사용 가능.  
노트필기, 자동 단어장 생성, 필기 내용 추출 등의 특수 기  
능 모두 지원하며, 인터넷 연결 없이 동영상 시청이 가능

# [What's next?]

이번 책 "The 5%"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영어 습득을 진행해 보세요.

링크: <https://nyu.selz.com>

<b>The 5%</b> "The 5%" 원서출판권 만드는 어휘 책 beta test, PDF \$100.00 USD <del>\$149.00</del>	<b>The 5%</b> "The 5%" 원서출판권 만드는 어휘 책 beta test, iBook \$100.00 USD <del>\$149.00</del>	Learning English, not studying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문 법책" - iBook + PDF 두 가지 버전 동시 구매 \$12.45 USD <del>\$17.45</del>	"전치사의 아름다움" PDF + iBook 두 가지 버전 구매 \$12.45 USD <del>\$17.45</del>
3 Sold, 6 Views, 3 Options	3 Sold, 7 Views, 3 Options	0 Sold, 12 Views, 3 Options	0 Sold, 5 Views, 3 Options
김도현 뉴미디어 영어 오 프라인 강연 1차 & 2차 \$7.90 USD <del>\$10.00</del>	"NYU 유학생"의 두 번 째 책, "전치사의 아름다 움" PDF \$8.98 USD <del>\$12.45</del>	"NYU 유학생"의 두 번 째 책, "전치사의 아름다 움" iBook \$8.98 USD <del>\$12.45</del>	Learning English, not studying NYU 유학생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문법책 - iBook \$8.99 USD <del>\$12.45</del>
18 Sold, 243 Views, 3 Options	460 Sold, 5k Views, 3 Options	435 Sold, 5k Views, 3 Options	862 Sold, 12k Views, 3 Options

# [What's next?]

제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학습 방법과 강의를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www.youtube.com/user/LivelongLearning/playlists](http://www.youtube.com/user/LivelongLearning/playlists)

The screenshot shows the YouTube channel page for '온라인 김도현 뉴미디어 영어' (Online Kim Do-hyun New Media English). The channel has 15,878 subscribers and 863,921 views. The banner features a purple background with the text 'Learning English, not studying' and icons of a laptop, smartphone, monitor, and game controller. Below the banner, the channel name is displayed with a 'View as: Yourself' dropdown. Navigation tabs include Home, Videos, Playlists, Channels, Discussion, and About. The main content area shows a video titled '미드로 영어 공부, 자막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by 김도현 뉴미디어 영어' (Learning English with dramas, should I watch subtitles or not? by Kim Do-hyun New Media English) with 21,525 views from 4 months ago. The video description discusses the benefits of watching English dramas with subtitles and provides links to the channel's website and a book purchase link.

15,878 subscribers    863,921 views    Video Manager

Learning English, not studying

온라인 김도현 뉴미디어 영어    View as: Yourself ▾

Home    Videos    Playlists    Channels    Discussion    About

For returning subscribers    For new visitors

미드로 영어 공부, 자막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by 김도현 뉴미디어 영어

21,525 views · 4 months ago

강연 내용: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할 땐, 자막을 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요? 봐야 한다면 영어 자막을 봐야 할까, 아니면 한글 자막을 봐야 할까요? 그 결정의 이유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저의 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영상을 통해 하나씩 설명해 드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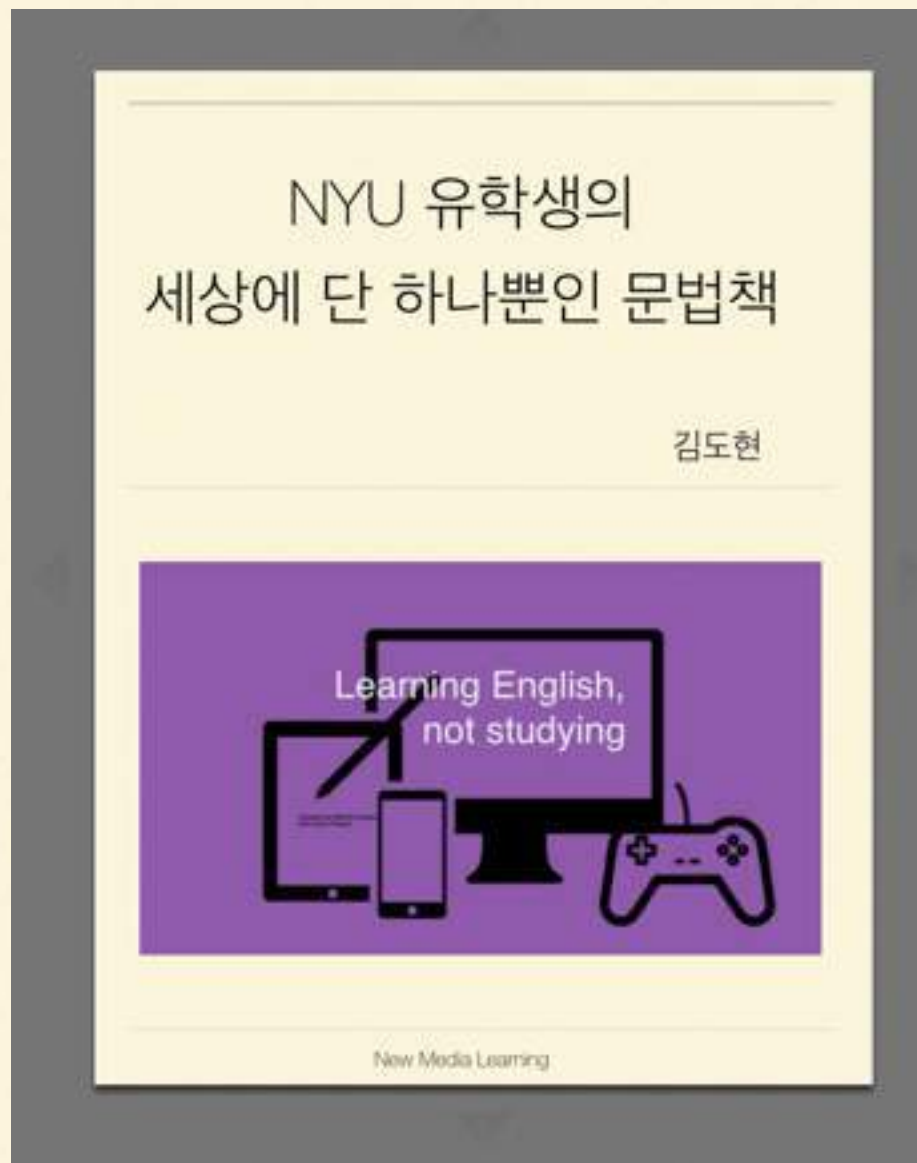
대치동 김도현 뉴미디어 학원 홈페이지:  
[www.newmediaenglish.com](http://www.newmediaenglish.com)  
뉴미디어 어휘 책 구입: [brunch.co.kr/@dohyunkim/109](mailto:brunch.co.kr/@dohyunkim/109)  
문법 책 구입: <https://brunch.co.kr/@dohyu>.....  
[Read more](#)



# [What's next?]

아직 저의 첫 번째 책, “NYU 유학생의 단 하나뿐인 문법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법을 규칙이 아닌 의미 중심으로 설명한 유일한 책입니다. 입체적인 입력과 영어 “공부”가 아닌 영어 “습득”에 대한 설명과 뉴미디어를 통한 영어 학습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책 소개 링크:<https://brunch.co.kr/@dohyunkim/77>



---

# [What's next?]

저의 두 번째 책, "전치사의 아름다움"이라는 전치사 중심의 어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영어에서 전치사가 주는 역할과 표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한 책입니다.

서점에서 어휘책들을 확인해 보니 마치 복사 붙이기 한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현재 어휘 책들은 왜 모두 복사 붙이기를 한 것처럼 똑같은 걸까?"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시작된 작업입니다.

특히, 기존 방식의 어휘 책보다 3배 이상 효과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어휘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 1. 190개의 영상과 사진을 수록해 영어를 한글 뜻뿐 아니라 단어 고유의 맛을, 향을, 색을, 그리고 표정과 감정을 입체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 2. 전치사를 규칙이 아닌 "의미 중심"으로 설명한 유일한 책으로 뉴미디어 학습과 인지과학을 기초로 단어를 단순 암기하지 않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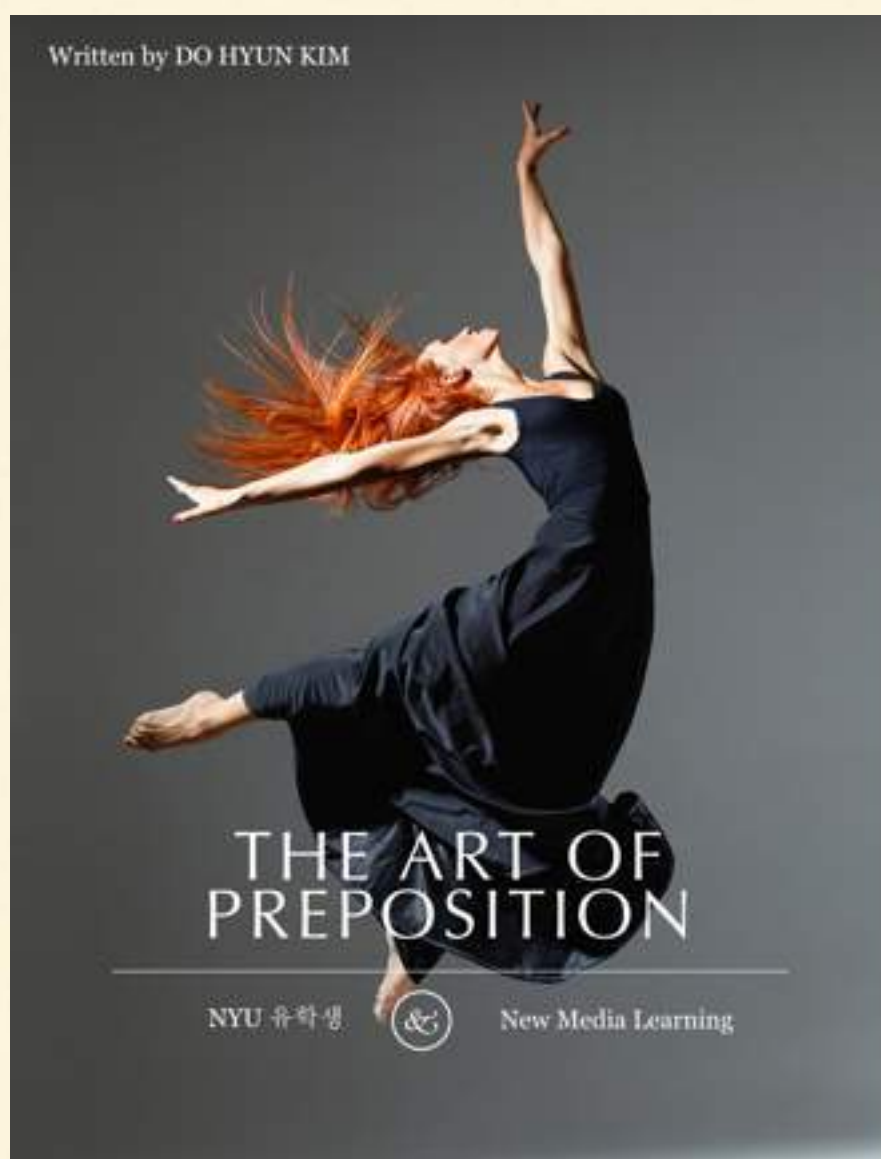
iBook으로 구매하기 링크: [http://selz.co/4kMe2O-w\\$](http://selz.co/4kMe2O-w$)

PDF 버전으로 구매하기 링크: <http://selz.co/EyLXHKuwW>

샘플 다운로드 및 더 자세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https://brunch.co.kr/@dohyunkim/109>

책 소개 링크: <https://brunch.co.kr/@dohyunkim/77>



---

# [What's next?]

오프라인 특강입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인, 위치적인 제약으로 참가하지 못한 분들의 요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은 새로운 영어 학습 연구를 위해 사용됩니다.

1차 강연 목차 및 내용: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영어 학습 최적화

1) Introduction

2) 한국인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와 해결 방법

- 한국인은 왜 영어를 10년간 배웠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못할까?

3) 영어공부를 더 즐겁게 만드는 스마트 기기 활용 방법

- 단순암기가 아닌 영어에 맛과 향, 그리고 감정을 입히는 방법

- 종이책 vs. 전자책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

- 영어원서 읽기를 쉽게 만드는 유튜브 활용 팁

- 영작연습, 영어일기 그만 쓰고 에버노트를 써라

4) 자신에게 딱 맞는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한, 'Why, How, and What'

## 2차 강연 목차 및 내용: 수준별 영어 학습 최적화 방법

### 1) Introduction

- 자신에게 맞는 매체, 기술 선정
- 간단한 퀴즈를 통한 자신의 어휘력 확인

### 2) 초급, 중급, 고급자가 겪는 고민과 해결 방법

- 미드로 영어 공부, 자막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 한글과 영어 자막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 초급/중급/고급자를 각 레벨에 맞는 영상자료 고르는 법

### 3) 원어민과 영어 회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당장 필요한 토익 점수를 받아야 할까?

오프라인 강의 구매 사이트 주소:

<http://selz.co/NJybB9kGz>



# [What's next?]

실제 뉴미디어를 사용한 영어 학습법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원서를 읽고, 이를 기준으로 스토리를 영작하고, 스토리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고급자는 소논문을 쓰며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을 하고, 가상현실 VR 장비 등을 통해 다양한 학습 매체와 기술을 사용하며 영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부 학생을 위한 학원입니다. 주위에 이러한 방식을 좋아하는 학생과 부모님에게 알려주세요.

대치동 김도현 뉴미디어 영어 학원 홈페이지:

<http://www.newmediaenglish.com>



---

출판된 모든 책, 오프라인 강의, 그 외 기타 자료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https://nyu.selz.com>

해당 서적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 주세요

[NY2KOR@gmail.com](mailto:NY2KOR@gmail.com)

블로그 <https://brunch.co.kr/@dohyunkim>